



목회서신 [5/2/2021]

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문안 드립니다.

지난 수요일에 다녀온 양점심 집사님 심방 후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. 당일은 마침 구름이 껴 있어서 운전하기가 수월했고, 가는데만 2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지만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며, 함께 간 장로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. 사실 가기 전만 해도 집사님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. 몇 개월 전에 전화를 드렸을 때 제 목소리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시고 서둘러 끊으신 것이라던가, 요양원에서는 유일한 한국사람이신데 우리교회가 아니면 찾아올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1년이 넘게 지났으니 참 많이 힘드셨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죠.

하지만,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절차를 거쳐서 집사님을 보았을 때 그런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. 저와 장로님을 알아보시는 것을 물론이고 아이들은 왜 같이 오지 않았느냐는 말씀도 하시면서, 마치 한 달 전에 만나고 다시 만나는 것처럼 기억을 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. 여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하셨지만, 그래도 온전한 정신에다가 한국말도 잘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. 이제는 주로 누워서 계시지만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시구요. 바깥 공기를 마시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, 이런 저런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. 언제나 그렇지만 다시 떠나게 될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. 교회 식구들이 그리고 보고 싶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실 때는 더 그렇습니다. 나오는 길에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새로운 가디언과 함께 집사님을 렉싱턴 쪽으로 옮기실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

집사님에게는 교회가 유일한 가족입니다. 우리가 그분의 식구입니다. 집사님은 부추며 나물을 가득 담은 봉지를 교회 식구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. 한 시간 되는 거리를 매주 운전하며 교회를 다녔던 분이십니다. 이제 집사님에게 우리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.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몇 가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해 드립니다.

1. 우리교회는 현재 1.5 단계 현장예배를 적용 중입니다.

- 원하시는 분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- 백신을 모두 맞으신 분들에게는 예배 참여를 권해 드립니다.
- 합동예배 일정: 5/30
- 본인과 가족, 이웃을 위해서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: 3 Simple Behaviors – Washing Hands, Wearing a Mask, and Keeping Social Distance
- 주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데, 우리교회도 그에 따른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.

2. 새가족을 환영합니다: 지형재/김수미/예강/예안

3. 친교 준비

-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 조이셀에서 콩나물비빔밥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. 수고하신 모든 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.

4. 주 중 모임 안내

- 청년부 모임: 일요일 오후 1:00 (격주, 오늘 오후에 모임이 있습니다.)
- 셀장/인도자 모임: 다음주 5/12(수) 오전 10:00, 오후 8:00

5. 교인 동정 (한국방문): 백태현/김세은/혜인/선우 - 5/3~8/4

6. 건강과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.

- 양점심집사: BridgePort Health Care Center (Portsmouth, OH).

6. 고열/기침/가래/오한/몸살/두통/미각·후각 상실과 같은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검사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~!! 사랑합니다~!! 축복합니다~!!

이현구 목사 드림

※ 교회 PayPal Email: lkpcusa@gmail.com

